

지난호 동대신문을 읽고

통일시대 임박... 올바른 역사적관점 제시 부족 아쉬워

지난호(제1167호) 동대신문에서는 송석구 총장의 취임을 중심기사로 삼았고 교무위원 인사이동, 새학기에 즈음한 이사장과 총장의 인사발, 새내기 새로 배움터를 다룬은 새내기들의 생생한 목소리, 총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움직임 등이 주요 기사로 실렸다. 여러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중심기사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1면에서 송석구 총장의 취임 기사, 2면 총장의 입학식사, 5면 신입총장에 대해 듣는다는 특별기사로 나열되어 있다. 중요성이 있다거나 너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동대신문의 절대다수의 독자는 우리 1만 학우들이다. 지금 우리 학우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 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후배 학생들에게 스스로 삼류대 주장 유감 미래대한 애정과 정열 지니길

내가 본교를 졸업하고 학교에 남아 일을 하게 된지도 벌써 10여년의 세월이 지났다. 처음 이 대학에 근무를 시작했을때, 모교에 봉사하게 되었다는 기쁨과 함께 이 학교가 세계적으로 유수의 대학으로 발전하는데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할 내가 필요한 자질을 갖추었는가 하는 부당감이 상당히 나를 힘들게 했었다.

지난 근무기간동안 내내 이 부담감은 기쁨과 함께 나의 사고와 행동을 지배해 왔고, 앞으로도 내가 이 학교에 계속 남아있던 없던간에 결코 잊을 수 없을 일임에 틀림이 없다.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자책과 함께 말이다.

교내의 여러 부서를 거쳐 이제 학생부에 근무하여 학생들과 대화할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우리의 후배들이 건강하고, 진취적이며, 학교와 국가의 미래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정열을 간직하고 있음은 물론 자신의 삶과 일에 매우 충실하다는 것을 자주 느껴왔다.

그러나 학생들중에는 자기자신이나 이 학교에 대하여 상당히 비판적이고 자조적인 학생들도 있음을 본다. 일상적으로 결강을 하거나, 도서관에는 특별한 행사에 대한 선전...

쓰레기 종량제 후유증 심각 학교부터 분리수거 전면 실시토록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많이 많은 것이 쓰레기 종량제가 아닌가 싶다. 언론에서도 말하듯이 종량제 실시로 쓰레기가 많이 줄어 들었다. 버리는 쓰레기 양에 따라 쓰레기 처리비가 드는 것이나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 취지가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필자가 사는 동네의 경우 놀이터 앞에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데 제때에 수거가 안되고 있어서 아이들의 발길에 차여 다 터져서 날려있는 상태다. 구역 쓰레기 봉투가 약한 문제도 있으나,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악착같이 꼭꼭 눌러 뺄필까지 만든 주민들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또한 이런 문제는 쓰레기통이 사라짐으로 인해 생긴 것이다. 종량제 이전에는 각 집집마다 쓰레기통이 있다가 '분리수거'라는 이름으로 일정 지역에 버리게 된 후 골목마다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해 월 (인문대 철학과)

이해 월 (인문대 철학과)

강의시간표배정 문제있다

전공과 교양시간 대부분 겹쳐 학교의 일주제로서 학생권리 찾아야

올해로 4년제 수강신청을 해오고 있다. [화년때 부분 기점으로 수강신청을 하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느낀건 실감없는 차치하고서라도 학문에 대한 높은 열정을 담아내지 못하는 강의 시간표에 대해 몇마디 하고자 한다.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강의도 폭이 좁고 강의 계획서를 통해 강의 내용은 그 한계가 너무나 뚜렷하다. 무책임하게 신청한 학생도 문제가 있지만 수강정정은 학교·학생·교수님 모두에게 남비일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장 밀접하면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강의 시간표 배정의 문제이다. 다양한 강의를 자신의 필요시간에 맞추어 수강해야 하나 대부분이 중복되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았다. 듣고싶은 강의를 신청하는 것보다 시간에 맞는 강의를 선택한다는 것...

이해 현 (사범대 영교과)

만해 기념행사 타대 기념관서 개최 불합리 본교가 선배로서 모셔야

얼마전 신문을 읽다가 광복50주년 기념행사 년표를 보게되었다. 그런데 만해 한용운님의 기념행사가 고려대 인촌 기념관에서 열린다는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은것 같은 이 사실을 조금만 생각을 바쳐 우리 생활에 접목시켜 생각해 보기로 하자.

우리 생활중 과거의 조상을 기리고 감사하는 행사로는 제사를 꼽을 수 있다. 이 제사라는 것의 중요성, 즉 과거의 조상과 현재의 후손들을 이어주고 한 가족의 유대를 강화한다는 상징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목숨처럼 제사일을 기어하고, 제사를 지내왔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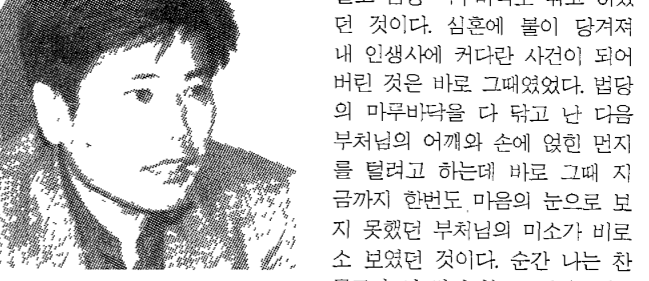
조금은 견해차이가 있었지만 국가차원의 광복50주년 기념행사로 열리는 만해 한용운님의 기념행사는 과거의 한용운님과 현재의 우리들을 이어주고, 우리에게 광복의 의미와 독립운동의 정신을 대 한 고마움을 느끼게 하고, 민족의 유대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점에...

최정식 (야당정치 신방과)

동/문/칼/럼

삶의 화두 '부처님의 미소' 어떤 고비에서도 늘 미소짓는 경지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심혼에 불이 담겨지던 어느 한때가 다 있으리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모교인 동국대학의 시절은 철부지였던 나에게 정신적인 성년이 되게 하여준 시기였다고 고백할 수 있다. 강의실을 드나들면서 불교학회 활동도 하고 방학이면 절로 들어가 한철씩 소일 습작을 하던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가 나에게 참으로 소중한 때였다. 마치 모래 속의 사금처럼 반짝이던 날들이 아니었나 싶다.



불교가 무언지, 건학이념이 무언지도 모르고 다닌 학교였지만 지학수의 수백처럼 인연은 맺어지고 있었다. 그것은 소설을 쓴답시고 방학 때마다 찾았던 절에서 이루어졌었다. 밑을 하는 연인처럼 혼자서만 늘 찾아간 곳은 신라 구산선원 중 하나인 사자산파의 개조 절감각사가 주석하였던 상봉사였다. 나는 그절에서 참어 등등이 우선 순위로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물론이다. 그러나 거기다가 보다 더 넉넉한 인생을 위해 자신만의 화두 하나를 대학 시절에 가져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정찬주 (소설가·국문 80쪽)

정찬주 (소설가·국문 80쪽)

정찬주 (소설가·국문 80쪽)

정찬주 (소설가·국문 80쪽)

정찬주 (소설가·국문 80쪽)

본사 모니터를 소개합니다

동대신문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올바르게 평가하며 동국의 건전한 여론을 함께 형성합니다.

- 정정훈(기조실 공보부) 김정식(공과대 산업공학과) 박상관(학생처 학생과) 백미연(공과대 건축공학과) 김상애(교육대학원 교학과) 조일환(상명대 국제경제학과 조교) 김성현(불문대 불교학과) 유병문(불교대 불교학과) 김성원(불문대 불교학과) 이효린(불교대 불교학과) 김필홍(야간과 불교학과) 김일환(문과대 국문과) 윤영미(자연대 기교과)

모니터는 오는 10일(금) 6시까지 신문사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동/약/광/장

목 먹골

고 많았다. 계속 분투하길 빈다. -수경

알립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광고학과, 인방과, 중문과, 신일학과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야초

95여! 빛나는 93의 그날들을 배우시오! 93여, 찬란하던 93년의 그 태양을 잊지 마시다! -국교

활기찬 개강을 맞이하며 열심히 살아 갑시다. -지교 우리들

현대과학 연구회 8기(94)에게 드립니다. '95년도에는 더욱 열심히 하세요. 보람찬 95년도를 위해 -3월13일에 떠나는...

통계조사 연구회 20기 여러분, 올해 잘해봅시다. -K·K·J

손짓사랑회, '94인원단 여러분 한해동안 열심히 활동하세요. -?

그리고...

44대 임원을 수고하고요. 선배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95학번들은

44대 임원을 수고하고요. 선배들 공부 열심히 하세요. 95학번들은

관·경(야) 아그들이 입학을 축하한다.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은방골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광복절이 맞고 젊-세에 들어오고요. 잘 있어요. -젊은 새 이웃 93학학생

한국상경학회(K·C·C)의 첫 집회를 자축하고 싶군요. 이 걸음이 더욱 커지길 바랍니다. -31대 서중후

성자랑 숙연이랑 승민이랑 애들이! 너희들 좋은 친구들이야(진짜) -단짜

난 95보는 맛에 학교온다. 화학과 95년세 -94 형이가

식물지원회와 '95학번 새내기들을 반겨 맞으며 '94학번 아이들에게는 수고합니다!! -학생회관에서 '93

진영아, 너무 아파하지 마라! 감기 빨리 나라. -공대 노래패 특별팀! 지연아 생일 축하해! 그리고 승훈아! 너 잘 있어! 미리아! 수고했다. 병화오빠 보고만 하면 그냥! -신안문학학회

전 동국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공학과에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안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신안문학학회

전 동국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공학과에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안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신안문학학회

전 동국인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업안전공학과에서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 축하드립니다. 안전! 저희들에게 맡겨 주십시오. -신안문학학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중앙문에 창작모임 '창'만세~ 열심히 합시다. -창사

정보산업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학교생활열심히 하고 선배들에게 밥 많이 얻어먹고 튼튼히 자라 주시길... -백기아버

그리고...

동대신문사 아그들이! 정론, 지필의 전통을 굳건히 지켜나가길... -떨어진 X 3471 형들이

대자연 봉사단, 3월9일 정기총회 및 개강 party합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장

중간, 석학, 희성, 승택, 춘희야! 우리 제대해서 복학해도 좋은 친구가 되자. -우정

창년 불자의 하나된 함성! 동국대학교 제30대 불교학살회 임원단 여러분,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힘과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용맹전진할수 있는 범우님이 되셔야 합니다. -온세상이 불국정되는 그날까지

제12대 총학 간부여러분! 경주 자치권 확보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 -총학생회장

제12대 총학 간부여러분! 경주 자치권 확보 그날까지 열심히 투쟁!! -총학생회장

정당 공천 배제를 진단한다

'풀뿌리 정당정치' 말살의도 엿보여

지자체선거 연기를 목표로 행정구역개편논의

지난 해 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하여 구역(Boundary)과 계층구조(Structure) 문제, 양측면에서 제기되었던 계층구조의 문제점에 대해 지방자치전문가 학자들 사이에서도 견해가 일치되지 않는 점과 시기의 촉박성때문에 구역의 개편으로 일단락되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지자체선거를 4개월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민주당은 똑같은 사안을 다시 제기하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번에 제기한 행정구역개편논의는 지방자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측면보다 당리당략을 앞세운 정치적 동기가 우선했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우려를 금치않을 수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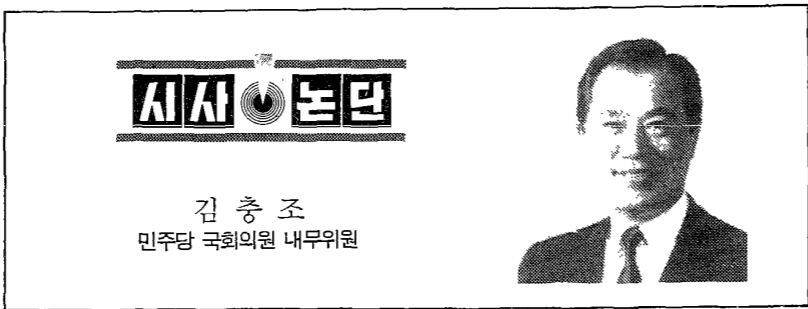
언론플레이와 민주주의의 돌출적인 행동으로 야당인 민주당의 의중을 때리고 국민적 반응을 살펴본 김영삼대통령은, 지자체선거를 연기할 경우 집권후반기의 정권안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될것을 예단하고, 2월2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자체선거의 예정에 따른 실시를 다짐하였다.

기자간담회의 주내용은 △4대선거는 예정대로 실시하며, △불합리한 행정구역의 경계조정 △선거연령의 추가적인 시·군통합 실시 △지방자치의 기초단체선거는 정당공천배제이다.

결국 기초자치단체의회·장의 정당공천배제(이하 정당공천배제)만 명그렇게 남겨두고 이 민중의 정당한 정치적 의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민으로 위장된 1인칭의 신권위주의

김영삼대통령은 행정구역개편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자체선거를 연기하려는 음모를 꾸미다가, 안기부의 지자체선거연기 공작문건이 폭로되고 정권지지기반이 흔들리게 되자, 이를 포기하고 지방자치제도를 완화(緩和)하여 단체장의 권한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마저 여의치않자 지방자치선거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지방자치'는 생활자치·주민자치이지 정치



김중조 민주당 국회의원 내무위원

자치가 아니다"고 행정적 의미로 최소화시키거나, 정당공천을 배제하여 친여성향의 지역유지를 최대한 당선시켜 실적을 채우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민주당은 당무회의에서 민중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선거부정방지법중개정법률안(이하 선거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았다. 민주당이 제출한 개정법률안의 핵심내용은 오직 하나다. 바로 기초자치단체의회·장의 정당공천배제와 선거에 있어서의 정당표시금지이다.

선거법의 정당공천조항은 지난해 3월에 여야간에 합의한 사항이며 민주당도 이 조항이 포함된 선거법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이 법이 여야의 합의에 의해 국회를 통과하자 김영삼대통령은 철저한 법집행을 하겠다고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배석시키며 미국식을 흉내내어 지금까지 유례가 없던 서명식까지 가지며 삼폐인을 터뜨렸다. 그런데 서명서에 임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를 고쳐야 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믿을 잘 바 꾸는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정치도의적으로 용바르지 못하다.

"의회 민주주의-정당정치" 파괴 발상

민주당은 일부 학자나 결성원이 주장하는 '기초자치단체는 정당이 배제되어야 당리당략에 따르지 않는 지방행정이 운영될 것'을 인용하여 떠들고 있으나, 이는 속민 감정에 불과하며 그들의 주장도 '단편적 환상'이기가 쉽다. 첫째, 정당이 배제되면 우선 정당이 지원

할 수 없으므로 지역의 돈많은 유자들이 앞을 다투어 출마하게 되기 십상이어서 '금권정치'를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조직없이 선거를 치를 수 없고, 주민선택과 의견수렴을 할 수 없으므로 '사조직'이 형성된다. 또 선거가 끝나자마자 의정선거등을 계기로 사당이 형성되며, 기초자치단체장은 예산안과 조례등의 의회결정을 위해 자신의 조직을 만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러한 사조직과 사당은 사적인 인연이나 금전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비공개적이고 불투명하게 이해관계에 따라 이합집산하는 통당구조로서, 지역이거주의를 심화시키고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음으로 정당공천금지제는 입법화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

지난 '91년의 기초의회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금지하였으나 여야 모두 내부적인 공천을 하였다. 특히나 이번 선거는 4대선거가 동시에 치루어지므로 정당공천금지제는 무용지물이지만, 법적으로 정당공천이 금지되어 있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당소속의원'의 사당화로 귀결되게 된다.

셋째,정당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반민주적인 형태라 할 수 있다.

김영삼대통령은 "기초지방자치"는 생활자치·주민자치이기 때문에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어서 정당이 필요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이것은 정당에 대한 철학박론의 자기 고백이요 정당의 무력화를 기도하는 것이 다.

이해관계와 대립이 있는 곳에 정치가 있고, 이의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공조적인 정당이 형성되는 것이며, 지역에도 이해관계와 대립은 항상 발생하므로 당연히 지방자치에도 정치는 있으며, 주변여론의 형성 과 조사를 위해 정당조직은 반드시 필요하다.

백제,지방자치가 중앙당에 귀속된다는 주장은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전혀 사실과 다르다. 지방자치는 대부분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중앙당이 개입할 필요가 없으며, 또 잘못 개입할 경우 지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화·선진화 혁명

이러한 객관적인 현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정당공천배제를 규정하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첫째는 정권의 지지기반이 떨어져나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대구·경북지역의 민심이반, 김중필씨의 발당에 따른 충청지역의 반 김영삼정서 등)으로 지자체선거의 패배를 호도하려는 것이다.

둘째는 친여성향의 지역유지들이 공천을 희망하고 있는데 1인에게 공천을 주므로서 발생할 지역유지들의 반민당화가 두렵고, 여권성향의 출마자 난립으로 조직분규 발생시 이에 대한 대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와 동시에 대한 포섭이 쉽다는 점과 또다른 한편에서는 사조직인 민주신약출신을 내친할 수 있으므로 민중계위원장의 지구당장악력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정당공천일 경우 야당공천으로 당선된 단체장은, 중앙정부의 통제권범위에서 벗어날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권후반기의 정권안정에 위협요소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의 일련의 돌발적 행정구역개편 주장은 당리당략에 불과한 것이며, 세계화나 국제경쟁력강화를 이를 호도하기 위한 것임을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은 민주주의 발전과 정당정치의 성숙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사설

총동창회비...합리적 해결해야

계강과 함께 학교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기를 되찾고 있다. 새로운 학기, 새로운 학년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생동감 있다. 게다가 올해의 시작은 학교 운영의 총 책임자인 총장까지 새로 취임하면서 한층 더 활기에 넘치고 있다.

올해 우리 동국이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이런 활기참으로 극복해 나갈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내 구성원들의 부단한 노력과함께 학교를 지켜보고 있는 10만 동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총동창회의 학교발전에 대한 노력이 중요할 때인것이다. 왜냐하면 학교발전의 중요한 부분인 재원마련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지난 총장선거 과정에서도 이미 많은 후보들의 공약속에 드러났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었던 사실이기도 하다.

어느때보다 총동창회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시기에 총동창회비가 다시 문제가 되고있다. 88년 학생들은 총동창회의 혁신과 학교발전의 기여를 요구하며 동창회비 납부거부와 기납부 동창회비의 지급동결을 결정했다. 그리고 92년 총동창회의 근본적인 변화없이 적립되어있던 동창회비의 유출과 총동창회임회비 징수에 대해 학생들의 반발이 있었고 총동창회임회비 납부거부 고수와 지급동결된 동창회비의 환수를 통해 목격장학회가 건설되었다. 이렇듯 학내에서 동창회비가 문제가 되어온지 8년여가 지났음에도 동창회비 문제는 풀릴기미가 보이지않고 또다시 올해 4학년 학생들에게 고지되면서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92년과는 다르게 동창회비 고지서가 따로 제작되어 4학년들에게만 배포되는등 학교 당국과 동창회가 고심한 흔적은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전의 모습을 볼때 문제해결의 올바른 순서는 아니었다.

동창회는 나름대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현 회장이 취임한 이래 다양한 활동속에서 장학재단 설립을 목전에 두고있기도 하다. 그러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있고 이를 적절히 활용할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이 부족했것이 사실이다. 동창회의 이러한 모습속에 좀더 유동성을 두고 재학생들과 협의하고 재학생들의 의의를 기다리는 것이 보다 합당한 방법이었다.

학생들 역시 문제가 없는것은 아니다. 학생총회 결정사항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납부거부만을 주장해서는 안될것이다. 올바른 동창회의 위상과 미래의 동창회 주인공으로 자기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고민속에서 합리적이고 발전지향적인 판단을 해야 할것이다.

어찌됐든 동창회비문제는 풀어야할 숙제로 남는것이 사실이다. 이법을 계기로 동창회의 도약과 학교발전의 기여 방안에 대한 재추진들의 심도깊은 고민이 있어야 할것이다.

동국만평

이영일



(박주영 기자)

◆학과 조정상황을 점검한다

보직개편으로 일시적 소강상태 의견수렴후 제도적 조치 필요

'96학년도에 학군체제로 신입생을 모집한다는 계획이래 발족한 본교 학과조정위원회가 보직개편에 의해 한시적인 위위로 물에 따라 본교의 학과조정이 일시적인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다.

작년 11월에 발족한 학군체제 및 학과조정위원회는 기초실장을 위원장으로 각 단과대 학장 등으로 구성되어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거

치면서 학과 조정시안을 마련하며 학과조정 전반기에 걸쳐 연구를 해왔다.

그러나 송석구 총장이 새로 취임하게 됨에 따라 부총장 및 보직인사들에 의해 위원회 위원장이 기초실장 및 각 단과대 학장들이 바뀌어 위원회 임원들을 새로 교체할 것인지 계속 유지할 것인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아 학과조정에 관한 작

업이 미진한 것이다.

학군체제 및 학과조정이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작년 7월 교육부의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 계획'확정발표 이후로 서울대학 및 경북대, 한양대가 8개 학과군으로 올해 신입생을 모집하는 등 전국 23개 대학이 1백74개 학과를 69개 학과로 신입생을 모집했다.

이렇듯 학과조정이 조정되고 있는 것은 현행 설치 학과의 세분화나 인제 학과운영이 폐쇄적이고 개설 강도가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을뿐 아니라 학과간의 유기적 협조체계가 결여되어 대외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문제제기에 의해

추진되었다.

학과가 학문의 발전에 대응하여 만들어졌다고 보다는 대학의 정원을 확대하고 특정 교수의 세분화나 의 방편으로 이용된 경우가 많았던 것 또한 전반적인 학과조정 필요성을 강조하기 좋은 문제다.

신입 송석구 본교 총장은 지난 3일 학사보고회 자리에서 학과조정 에 관해 "충분한 토론 이후 집단이 기준의 등 몇개의 장벽을 뛰어넘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미래의 학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학과조정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빠른 시일 안에 학과조정 방향을 다시 설정할 것을

시사했다.

한편, 학과조정 계획을 진행하던 중 대부분의 해당학과 교수들이 학과가 통폐합될 경우 자신들의 입지 변화를 우려해 적극 반대한 뿐 아니라, 학생들 또한 이해의 폭이 넓게 확대되지 못해 학과조정 계획이 진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 당국은 연구년교수와 강의교수 제도의 마련과 학내의견 수렴 방편을 모색중이나 사법대학원 예술대학 등 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들 제도적인 면에서 해결점을 찾기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실습안내

95학년도 교육실습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1. 교육실습기간: 1995.4.3(월)~4.29(토), 4주간
2. 교육실습신청기간: 1995.3.6(월)~3.10(금)
3. 신청부서: 사범대학 교학과
4. 대상및자격: 사범대학생이나 교직과정 이수증인자로서 95학년도 1학기에 4학년재학생인자
5. 교육실습비: ₩35,000-(사범대학생제외) 사범대학 교학과에 납부함.
6. 교육실습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시 실습학교의 교육실습동의서를 사범대학 교학과에 필히 제출하여야 함.

사범대학장

복수전공안내

'95학년도 전기 졸업대상자중 복수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의 지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1. 지원서접수기간: '95.3.13.(월)~3.15(수)
2. 접 수 처: 학적과
3. 지원 자격: '95년 2월 졸업대상자나,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한 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점 평균이 3.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4학년 2학기는 제외.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때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한다.(학위수여일자 동일함)
5. 제출 서 류: 가.복수전공 이수 지원서 1부 나.성적증명서 1부

교무처장

삼성생명 취업설명회

'95년 1차 입사상담 및 취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아 래

대상자: '95년 8월/'96년 2월 졸업예정자

1. 입사상담

일시: 95년 3월 6일~11일·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본관 취업과 취업자료실

2. 취업설명회

일시: 95년 3월 9일 14:00

장소: 동국관 L301

제7대 참열매 졸업준비위원회

'95 춘 계 어 학 특 강

접수일정: 95년 3월8일~3월31일
접수처: 구내서점(구 만해문고)
문의처: 학생복지위원회(구내3681)

강좌명	강사명	강의실	강의시간	강의기간	수강료
영어순회	남방국	M302	07:30~08:50		10,000
안팎사토익	김미숙	L301	07:30~08:50		15,000
시사토익	권영도	M303	07:30~08:50		10,000
일본어기초	오지혜	G206	07:30~08:50		15,000
영어회화	초급A	G204	07:00~07:50	3.27~5.12	70,000
	중급A	G205	08:00~08:50		
영어회화	초급B	G204	17:00~17:50		
	중급B	G205	08:00~08:50		
어학	초급A	G204	07:40~08:40		
	중급A	G205	07:40~08:40		
영어회화	초급B	G204	17:00~17:50		
	중급B	G205	17:00~17:50		
비즈니스사회		M304	07:40~08:40		90,000
시스템토익	안주영	L501	07:30~08:50		10,000
북경중국어	이상선	M404	17:00~17:50		30,000
토익특별반	피터슨	G207	07:30~08:50	3.13~6.13	90,000
토익L/C강의	권오열	LAB실	17:00~17:50	3.27~5.12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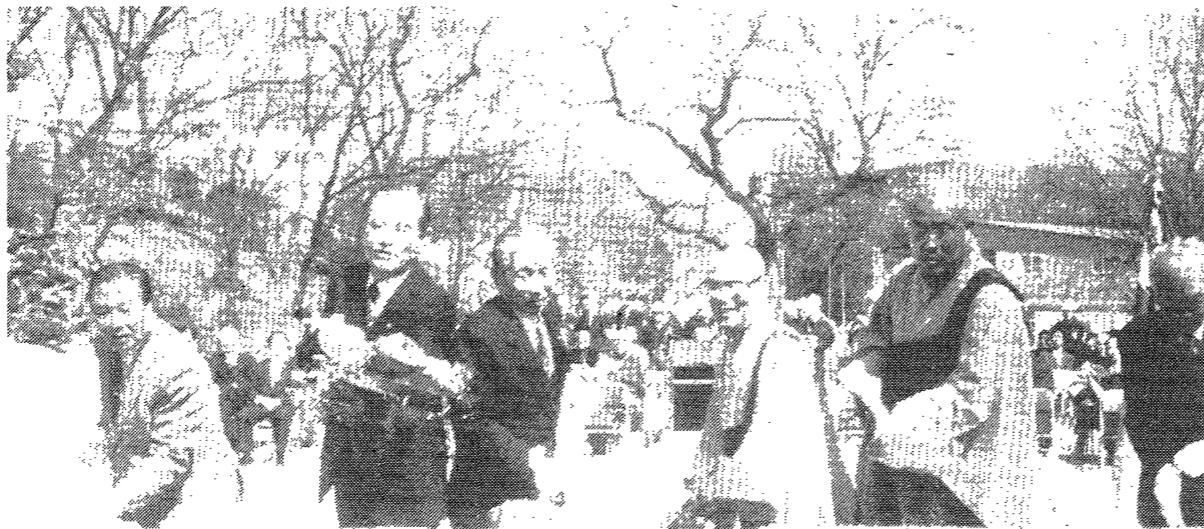
제11대 학생복지위원회
학우들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

교수 기고

달라져야 할 우리대학... 새총장에게 기대한다
민총장 - 범동국인 모임 한번없어 발전기금 저조 남아
송총장 - '무소불처럼 동국발전의 외길...' 허상이 아니길

광해군과 인조

1700년 중국 요동지방에 명나라와 후금국(후에 청나라)과의 전쟁이 일어났다. 명나라는 우리 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해 왔다. 우리 나라는 명나라와 오랫동안 외교를 맺어온 터라 그를 거절할 수가 없어 광해군에 강종립을 도원수로 보낸 수만을 급파 하였다. 그러나 쇠약해진 명나라는 막강한 신흥세력으로 등장한 청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다. 이를 알아차린 강종립은 수만의 병력과 함께 청나라에 투항하고 말았다. 국제정세에 밝은 광해군은 은밀히 강종립에게 밀지(密旨)를 내려준 것이다. 형세를 보아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광해군은 청나라의 침략을 모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인조때는 상황이 달랐다. 세계정세에 눈이 어두운 인조는 오직 명나라의 외리만을 지키고 있다가 청 태종으로부터 국난을 당하고 말았다. 인조는 이 난을 피하여 급히 남한 산성으로 피신을 하였으나 끝내는 더 버티지 못하고 삼전도(三田淵)를 내려와 함복하고야마는 수모를 겪어야만 했다.



다는 소문이다. 무엇이 양심이고 또 무엇이 정의인가? 이런 것들이 전총장의 업적 중 기대에 못미치는 부분의 하나다. 또 하나는 동국발전기금 마련이다. 전임 총장때인 전반기까지 총 모금액은 14억3천만원이라고 한다. 그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다.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된 다른 대학들의 모금액이 1천억원을 넘었기 때문인 것만은 아니다. 모금을 위한 범동국인 모임 한번 없었다는 것이 더욱 그러하다. 지난번 총장 후보자들이 동국발전 모금을 총장재임 기간 내에 1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까지 모으겠다고 한 주장은 아마 동국의 현 위기를 돈으로써 발전의 계기로 삼아 보겠다는 의미도 있었으나 또 다른 의미는 전임 총장의 구태연한 자세에 더 관심을 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기가 그 점에 대하여 이해가 가는 점도 없지 않다. 총장 재임 4년중 1년밖에 총장 집무실을 사용하지 못했으니 이점에 대하여 우리 모두 동정의 연민을 느껴야 한다. 아무튼 전임 총장께서는 우리들이 만족 할 만한 성과는 거두지 못했으나 어려운 여건속에서 학교발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에 대하여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 중략하고...

전임총장의 공과

매번 총장이 바뀔 때는 많은 교수들은 보직인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인사에는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느니, 보직관도 원장이 되었느니 하는 말들이 오간다. 그러나 위선이 앞서는 자들에게 학교행정이 갖게되면 권위주의적인 권력 때문에 분위기가 혼란해지고 학교가 열병을 앓게 된다는 격정에서 그러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 대학 보직자들의 생애를 보면 소위 보직관이라 불리우는 사람들이 많이 등용이 되어 왔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자기 전공과는 무관한 것까지 원정보직(遠征補職)을 해 왔으니 말이고... 또 한 예는 총장을 포함한 전보직자가 학정위원회를 마치면 정각원에서 의례적으로 합동법회를 해왔다고 한다. 그런데 중요한 보직자가 그 법회에 참가하지 나타나지 않아서 말이 있었다. 그것은 동국대학교의 건학 이념이 불교라는 점에서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정한 뜻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었던 것 같다. 그래도 그는 2년간의 보직을 무사히 마쳤고 또 지난번에는 보직동용을 했

오늘의 지도자에 "복지부문의 권위주의적"인 형은 비생산적이다. 심리분석으로 이런 형은 매사가 소심적이며, 확신성이 없고, 필요 이상 고집이 강하기때문에 지도자로는 적합치 않다. 이런 형이 대학에 지도자가 되면 행정의 능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창조적인 새로운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여 학교발전이 막히게 된다. 그것은 지도자의 특징은 기존의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며 개인적인 목적에

집착하는 자기현시성만을 고집한다. 이런 형은 신변에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면 이 특성은 장안의 유명한 점장이를 찾아가 엄청난 액수의 복채(卜價)를 놓고 운수점을 쳐 그 점괘(卦)에 따르게 된다.

새 총장의 이미지

새 총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새총장께서는 지력이 뛰어나 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선거공약에서 밝힌 모금액 1천억원은 잘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취임사에서 밝힌 총장의 동국대학 발전의 미래상에 대한 각오는 우리 모든 동국인의 기대를 부풀게 하고도 남음이 있다. 일산에 15만평 규모의 대지에 제3캠퍼스 건립, 수도권내 한 양방병원(1천4백) 건립등을 중요 사업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 대학이 급성장하는 발전계획의 목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과 분위기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같은 사업계획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하여는 전동국인의 공감대를 이루는 정신적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대학의 발전을 유도하는 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 총장의 사업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어 의문스러운 점도 없지 않다.

지금 각 대학에서는 교육개혁이 심도있게 진행 중이다. 21세기는 교육산업 사회로서 교육도 국제간의 무한경쟁사회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변화에 우리 대학에서도 이미 새 총장께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하여 왔다. 아무튼 효율과 자율적인 심화를 고려하여 보다 심도

있는 추진이 있었으면 한다.

또한 현재 교수들의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매년 연구논문 한편을 쓰면 1백5십만원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현재 진행 중이다. 그러나 그 이상의 논문 실적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다. 그렇다면 교수들의 연구의욕과는 무관한 정책이 아닌가? 그와 같은 방법은 연구의욕을 높여 준다기 보다는 "연구의욕이 높은 교수들"에게는 오히려 연구의욕을 떨어뜨리는 것이 되고 만다. 이에 서감대 박총장의 개혁안이 어떠한지 한번쯤 고려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또 하나는 보직인사다. 때의 기미를 놓치지 않고 보직의 기회를 노려왔던 사람 중 몇 사람이 배려된 것은 새총장의 의지가 돋보인다. 이제는 이중성이 높아 평가되었던 시대도 또 와서는 안된다. 위선적이지 않고 성실하고 연구에만 전념해왔던 사람들이 학교행정에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그간에 보직으로 학문연구가 불성실했던 보직관들에게도 학문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그들을 학문과 강의의 공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할 때 우리 대학은 정의로운 학원 풍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새 총장은 모든 동국인을 신행시기는 무능한 역사인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야말로 "무소불처럼 유독히 동국발전의 외길을 걸었습시다"라고 한 새총장의 각오는 동국 번영(繁榮)을 위한 확신이라고 이해되며 결코 허상(虛像)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상현

(사회대 경영행정학과 교수)

총장출마자 공약을 분석한다



제13대 총장선거가 끝나고 총장임명까지 끝났다. 총장선거가 끝났다고해서 선거당시 제시되었던 동국발전의 상이 물려버린다면 선거는 그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 진정 올바른 정책대결의 장으로 또한 동국발전의 상을 그려가는 자리로 선거가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출마했던 후보들의 발전대안이 당선자에 의해 수렴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선거당시 제시되었던 각 후보들의 공약을 분석해 본다.

(편집자)

'공약'구체적 계획으로 현실화해야
재원마련, 1백억에서 3천억까지 다양

지난 선거에 제13대 동국대학교 총장 후보로 7명의 교수가 열띤 경쟁을 벌였다. 모두들 자신의 공약을 가지고 동국의 미래를 제시했다.

전반적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사항이 학교발전과 긴밀한 연관이 있는 재원확보 방안으로 집중되었고 또한 민병천 전 총장 재임기간 나타났던 문제의식의 극복대안과 당시 제기됐던 내용이 중심을 이루었다. 특히 선거를 얼마 앞두고 발표된 21세기 교육개혁 특별위원회의 중장기발전계획인 '21세기를 대비한 대학교육개선방안연구'의 내용이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풍부화 시켰다. 이와함께 제3캠퍼스 건설은 중요한 현안문제로 각 후보자들의 공약속에 배치되었다.

전반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속에서 제시되지 못하고 '이렇게 합시다'라는 구호식의 제시로 공약으로만 머무를 수 있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현실화 해낸다면 동국발전의 대안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부분도 있었다.

특히 재원마련 방안의 경우 여러 후보들이 각자의 이해정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했다. 또 그 액수 역시 1백억에서 3천억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었다.

그에 따른 방안으로 일정액의 기금서약서를 제시하기도 하였고 불교도 모금과 동문모금 그리고 학교경영합리화를 통한 교비의 절감과 재단전입금 확충 기타 수익사업등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예전부터 거론되어오던 봉원사 부지 매각도 재원마련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수익사업으로 의료휴양시설건립, 생수사업, 금융사업체 설치, 실업노동 및 실업률의 개발등이 제기되었다. 제3캠퍼스 건립과 관련하여서도 여러가지 방식으로 제안되었다. 50만평 이상의 부지로 교양학부를 운영하는 방식도 제기되었으며 구체적이진 않지만 일부 단과대 이전을 중심으로 고민하는 후보들도 있었다.

또한 학교행정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도 적지않은 후보의 공약속에 포함되고 있었고 경영방식의 혁신도 있었다. 특히 부총장제도의 개선이나 재정집행의 효율성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또 연구와 교육여건 개선에 관한 부분도 여러후보의 공약사항으로 제시 되었다. 세계각국의 저명교수초빙이다, 학내 연구소의 활성화, 학문영역 조정 및 교육과정 개선등과 함께 교수중심제와 관련된 부분은 교수에 대한 제단의 부담한 간섭배제와 신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도 했다. 또 산·학·연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건학이념과 사회봉사에 관한 부분, 대학원 관련 부분 등 다양한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어 나오기도 했다.

이외에도 의료원 관련 공약으로 포함 병원 증축, 종합병원건립 등도 제시되었고 캠퍼스 캠퍼스 자치권의 확대도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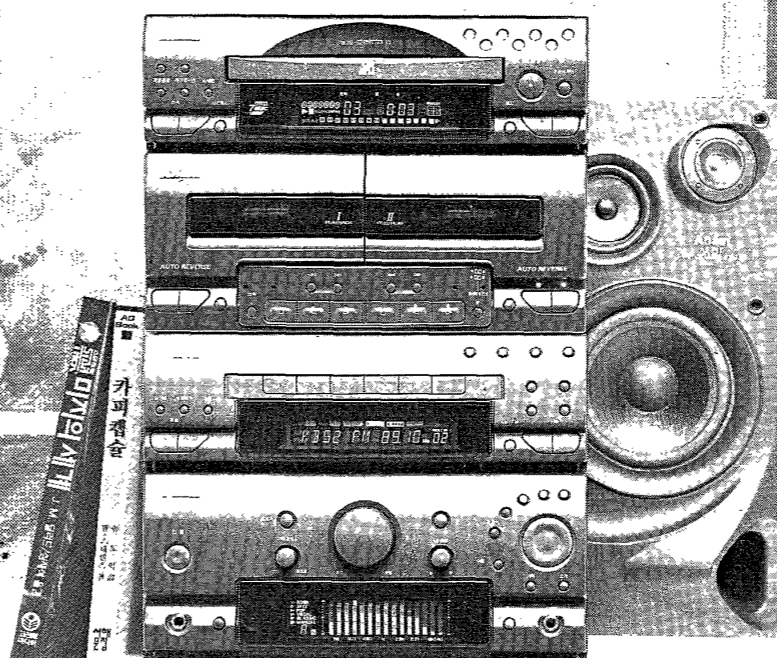
이러한 공약들이 당선된 한사람의 공약은 아니었지만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충분히 검토되어 실현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석중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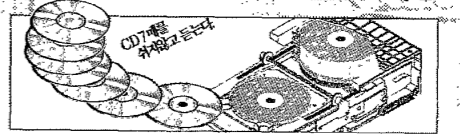
Anam

미니컴포의 A+
아남 「인.엑스 17」

CD 7장을 한꺼번에 넣고 마음대로 골라듣는 7CD 체인저,
100만원대 오디오를 능가하는 100와트 출력,
거기다가 영리한 7가지 AI 인공지능까지—
감각있는 새내기라면 미니컴포도 A급 아남 「인.엑스 17」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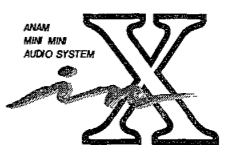
국내 최초 7CDG 체인저 채용



- 입체 서라운드 음향 정격출력 100W
- 음악감상을 편하게 해주는 7가지 인공지능
- 방송국영 파워 40제일 디지털 튜너
- TV, VTR까지도 조작되는 원 리모콘
- 테이프 자동복사, CD-테이프 자동 편집녹음

구성모델 : ATA-17/ADC-17/AS-F17
■ 자매모델 : 인.엑스 17G(삼페인 골드색)

인.엑스 17 ₩728,000



* 구입문의처 : 아남전자 전국대점 및 서울 2229-600
* 고객상담실(클로버서비스) : 080-022-8572(시내외 검음)

◇ 다시 읽는 '세익스피어' - 맥베드를 중심으로

'아침이 그르친 큰 영웅'이라 규정했던 맥베드. 그는 극중에 나오는 대사 "저 참혹한 인간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어울리는 비극의 인물이며 보통의 인물이다. 그를 통해 우리의 동시대인 세익스피어를 다시 보자. 우리들의 일부일지 모르는 '마녀들'도 주시하면서. (편집자)

맥베드, 혼돈 앞에 무력한 '보통사람'일뿐

야심찬 영웅·파괴자행 악한 구분에서 벗어나야

세익스피어는 여전히 우리의 동시대인인가? 4백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그의 작품은 애독되고 그의 극이 오르는 극장앞에는 줄이 이어지고 있다. 세익스피어의 정수를 보여주는 비극의 하나로서 일컬어지는 '맥베드' 이 '맥베드'의 세계에서 선과 악을 규정하는 기준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 결국 그것은 기존의 정치적인 구조의 존속에 기여하는 어떤 폭력은 목과되고, 기존 정치체제를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은 반역이라고 정의하는 세계가 아닌가? 1995년 오늘날 맥베드와 더불어 이 무대의 중심을 차지하는 '마녀들'을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불가사의하고 암암적이고 애매모호한 '기이한 존재'의 궁극적인 정체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원전에 대한 주의깊은 연구에 의해서 주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맥베드에 적용되는 선과 악의 기준은 우리 세계에 유효한가

이 극의 행위는 덩컨왕과 그 지지자들로부터 설정되는 명령체제와 덩컨을 정점으로 하는 정치구조의 질서를 가능케하는 차이들을 지우려고 시도한 '반역자' 맥도널드의 처형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맥도널드의 실패는 덩컨의 성공이 되고 엄격한 구별들을 토대로하는 명령체제는 전복의 위협으로부터 회복되어 다시 주창되나, 덩컨은 저 구별의 무효화를 선언하는 또다른 맥도널드인 반역자 맥베드에 의해 죽임을 당한다. 극의 마지막은 왕 맥베드를 정점으로 하던 국가체제의 무효화를 또다시 선언한다.

사회의 '규격화'에서 벗어난 지대에 마녀들이 살고 있다. 성의 구별을 무효화하는 '수염달린 여성'들이 양성체적인 존재들은 그들의 주거지 한복판에 놓여진 가마솥주위를 돌며 주문을 외운다. 이 가마솥에 넣는 내용물들은 주시할 만하다. 독을 마신 창자의에도 도롱뇽의 눈알, 개구리의 알발, 박쥐의 털, 벌의 갈라진 혀, 도마뱀의 다리, 용의 비

늘과 더불어 터키인의 코, 타타르인의 입술들은 전체로부터 절단되고 갈라진 부분들이다. 이 가마솥 안에서 개체의 구별들은 무산된다. 또한 두꺼비, 뱀, 도롱뇽, 개구리, 박쥐, 벌, 용들은 곤충도 포유동물도 아닌 '맥베드'에게서 배쿠오와 그의 아들 폴리아너스는 또한 '뱀'과 '벌레'로 표현되고 있다.

이 모든 내용물들을 한데 던져 넣으며 끓이는 마녀들의 의식은 다름 아닌 구별을 무효화시키는 의식이기도 하다. 끓어오르는 가마솥은 언제나 기존 정치구조의 전복과 반역의 가능성이 그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그리하여 무정부와 혼돈의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스코틀랜드를 시사하기도 한다. 마녀들은 이 진국의 진미를 더하기 위해서 파괴와 유린을 토대로 얻어진 습득물을 계속 첨가해 간다. 살인자의 교수대에서 채취된 뱀, 신성모독하는 유래인의 간, 낱자마자 목졸려져 시궁창에 처박혀진 사생아의 손가락등, 여기에서 이 끓어오르는 가마솥은 또한 스코틀랜드 민중의 끓어오르는 복수심으로 보는 흥미로운 해석도 가능해진다. 나아가 마녀들이 끓이는 스튜의 내용물들인, 전체성과의 연관성이 유실된 규정의 상실과 혼돈에 대한 구체적인 상상들은 또한 르네상스 이전까지의 고대, 중세

마녀들의 가마솥은 기존의 구조를 전복시키는 혼돈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의 국가관, 세계관이 보여준던 함묵적성이 도전받고 있음에 대한 시사로서 보여지며, 동시에 이전의 정의들이 필요되고 유실됨을 체험하던 르네상스시대의 강한 회의론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를 반영하는 중심적인 작품이라 할 '햄릿'같은 작품에서 반복사용된 논법이 의문형이었듯이, 이제까지 애용되던 은유가 '뒤집혀진 세계'에서 세익스피어의 작품이 보여주었던 두드러진

특징은 복잡성, 다양성, 비일관성과 더불어 유동성이었다고 보는 견해는 타당성이 있다. 실로 이 사회에서 어느 하나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것은 없다. 규정의 상실을 부각하는 마녀들의 '신체상의 유동성'과 함께, '맥베드'의 중심적 이미지 가운데 어느 하나도 규칙적인 것이 없음을 이를 잘 설명해주고 있고, 이것은 세익스피어의 다른 극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 극의 특징이기도 하다.

맥베드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규칙에 얽매인 사회질서 속에서 갈등하는 보통사람이다

마녀들이 '반은 인간'인 동시에, '반은 세상밖의 존재'로서, 남자도 여자도 아닌 수염달린 여성으로서 육체의 유동성을 보여주는 전이적 존재라면, 맥베드 또한 갈등속에 처해있는 '전이적인 인간'이다.

'전이적인 인간'이란 맥베드는 물론 스코틀랜드의 모든 인간들,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의 실존을 대변해주는 핵심적인 표현이라 하겠다. 맥베드는 자신의 운명을 만들고자 하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욕망과 그가 살고있는, 규칙에 얽매인 사회질서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이다. 맥베드와 더불어 그가 살고있는 사회의 구성원 모두를 얽매는 규칙이란, 덩컨이 왕으로서 권립하며 덩컨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적인 구조에 모든 신하와 백성들은 예속되고 그들의 삶과 운명이 그 지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맥베드는 그가 기용한 자객들처럼 단지 돈을 위해서 죽이는 단순한 인간은 아니다. 그는 스코틀랜드에서 왕 바로 다음 계급인 코더의 영주로서, 스코틀랜드의 지배계급의 기동적인 존재이다. 그는 그의 삶을 유지하는 동시에 통제해오는 제 제 도화된 복잡한 힘에 도전하고자 하는 무성고도 피로운 욕망에서 죽인다. 맥베드가 죽이는 자는 덩컨왕 개인이 아니라, 그의 운명을 지배하는 왕 덩컨인 것이다. 맥베드는 덩컨을 포함하여 그가 죽이는 자들을 중요하거나 경멸하

지 않는다. 뱀쿠오에 대해서도, 맥다프 부인과 그녀의 아이들에 대해서 더구나. 이 극에는 덩컨과 행위간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성격과 행위간의 연결점의 결핍은 이 극의 가장 흥미로운 특징의 하나이기도 하다. 흔히 맥베드를 '아침이 그르친 큰 영웅'이라고 규정하나, 극적인 행위 위상으로 볼때, 그렇게 간단하게 규정되지 않는다. 1막1장에서 맥베드가 자신을 '야심'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때는 덩컨왕을 살해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었던 때이기도 한 때문이다. '맥베드는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비극적 결함의 분석같은 전통적인 도구로서 접근할때 실제로 이해되지 않는 극이다. 세익스피어는 이 극의 가장 중요한 극적행위가 되고 있는 덩컨왕 시해라는 행위를 쫓아도 맥베드편에서의 단도 직입적인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행위가 되지 않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이 보여지고, 이러한 작가의도는 이 극의 사료가 되고 있는 홀린세드의 '시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맥베드, 그는 결코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위해 불요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는 영웅도, 일차적인 중흥의 성취나 이기적인 이해나 특

이 극은 감정과 행위, 성격과 행위간의 연결점이 보이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을 위해서 거침없이 파괴를 자행할 수 있는 악한도 아니다. 그는 마음이 하고자 하는 것을 행지 못하고 정체를 무서움에 짓눌려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약함을 지닌 끈고 한 한 인간일 따름이다. 그가 단순한 '악한'이라고 할 수 없을만큼 그의 고민의 치열함은 충분히 극화되고 있다.

인간 본연의 모습의 정체가 어떤 것이고 본연의 인간의 과업과 인간다운 행위가 어떤 것인지가 마녀들의 이야기만큼이나 모호하고 규정이 혼란스러운 이 세계에서 모든 인간들은 서로 그리 다르지 않다. 이 극에서 인간의 첫 대사인, "저 참혹한 인간은 누구인가?"는 피루성

이 장교에게 던져지는 질문일 뿐 아니라, 맥베드와 뱀쿠오에게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하며, 또한 덩컨의 이 질문은 높은 자기대신에 거침없이 '죽이기'를 수행해 준 '살해'전문가인 맥베드가, 지금은 반란자인가 여제까지 가장 극진히 총애하던 맥도널드를 그의 배움으로 부터 턱까지 술기를 타서 성벽위에 매달았다는 보고에 걸려서인 찬사를 터뜨리는 덩컨왕자에게 돌려지는 물음이기도 하다.

극이 끝날때 무대를 채우는 매킨의 왕관은 언제나 광채를 날 것인가

'맥베드'가 끝날때, 무대에 만연하던 어둠은 새 왕 매킨의 왕관의 광채로 인해 밝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 밝음으로 표현되는 선이란 다음 아닌 왕으로서의 매킨을 정점으로 하고서 구축되는 정치구조의 본질한 존속에 기여하는 질서가 되는 한, 이 밝음은 과연 언제나 계속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 왕 역시 인간이기보다는, 통치자가 되기를 선택할 것이고, 저 정점에 다다르고자 하는 열망이란 이 정치구조의 모든 일원의 당연한 본능인 이상, 끊임없이 나올 반역자의 목을 그도 수없이 잘라 매달 것이다. 또한 그의 아버지처럼 그에게 도전할 인간들의 목을 수없이 잘라주는 신하- 맥더프를 포함하여-를 감격하며 갈채할 것이다. 덩컨의 질문 "저 참혹한 인간은 누구인가?"는 매킨에게도, 맥더프에게도 적용되며 이 참혹한 무대를 즐기는 객석의 우리에게도 적용하는 질문인 것이다.

맥베드는 시시각각 우리 모두를 휩싸고 있는 어둠- 혼돈-의 세력의 위협앞에 노출되어 있는 보통사람인 것이다. 영웅도 악한도 아닌 우리들의 바탕에 또는 내면에 내재한 혼돈의 가능성을 가시화하는 마녀들은 '기이한 존재'들이나 또한 우리들의 자매인 것이다. 매일 찾아오는 밤이, 우리 하루의 일부이듯이, 김한 (문과대 영문과 교수)

달 하나 천 경이

3월, 나의 바람은...



요즘은 세계화나 국제화나 전문화나 하는 거시인 용어가 유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미시적 존재가 아니라 거시적 존재로서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가끔씩 구성원에게 신선한 충격과 생활에 박동력 있는 활력소로서의 유감없는 무형적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대학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금의 시대적 변화는 대학교육의 질과 여건에 따라 스스로 대학을 선택하게 되는 21세기 대학국제경쟁사회(교육산업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7개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대학평가인정을 받았고, 각대학에서는 세계적인 유수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으로 과중과합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따라서 국제화의 무한경쟁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대학의 어떠한 불협화음도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민주화와 더불어 언론의 자유는 구성원 개개인 혹은 단체의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 주었으나 거기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감은 소홀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감이 있다. 사회적인 책임감의 소홀은 자칫 극도의 이기주의로 권리를 주장하는 구성원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국민에게는 많은 불편과 소외감을 주고 있는 결국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위치와 본분에 걸맞은 역할분담을 생각하여 불태가 아닌가 싶다.

나는 대학에 몸담고 있는 선생으로서 대학의 역할과 스스로의 자세 및 학생의 본분을 새학기를 맞이하여 짚어보고자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니 만큼 대학은 우리사회가 필요로 하는 도덕성과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에 있어서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겠다. 이를 위해서 재단의 경영진에서는 교육과정의 개편과 대학내부의 개혁을 위한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투자에 과감한 정책의 실행에 용단을 기대해 본다.

나는 선생으로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연구를 계속리 하지, 알아야 함이 교육자로서의 기본자세를 명심하고, 아울러 학생들을 선도하고 젊은이들은 패기와 기상을 심어주는 데 열한 스승으로서 역할에 인색하지 않는 한해가 되기를 희망한다.

학생은 대학 4년을 사회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학문 투자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일찍이 중자는 시대가 요구하는 학생의 상을 "君子 以文會友 以友輔仁"이라 하여 글로써 좋은 벗을 만나고 이러한 벗들과 더불어 서로 격려하고 도와 덕을 닦는 일에 게을리 함이 없기를 훈계하였다.

주어진 4년의 기회를 선용하고 무엇이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자세와 긍정적인 사고로 사물을 보는 습성이 필요하다. "세살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불만을 품고 이를 불평하는 불평불만자는 모든 일을 항상 부정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습관이 생기고 이는 스스로의 삶을 불행하고 스트레스에 쌓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긍정적인 사고로 모든 일에 도전하고 어려운 일들을 풀어갈려는 젊은이들은 진취적인 기상은 여러분들의 생활에 여유와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제공할 것이다.

햇살이 중요하다. 그리고 보니 그제는 경주캠퍼스의 입학식이었다. 우리 캠퍼스에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날이다. 나는 그들이 높은 기상과 용비의 날개로 주어진 4년 혹은 6년의 시간을 선용하는 지혜로운 동류의 가족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한 (문과대 영문과 교수)

리바이스 종로점 OPEN!

3월11일, 종로에 아시아 최대의 리바이스 매장이 생긴다!

드디어 종로 한가운데 리바이스 매장이 생깁니다. 규모는 아시아 최대! 그 어느 매장보다도 다양한 국내외 리바이스 제품이 있고 최신 게임기와 멀티 스크린, MTV, 추크 박스 등을 즐길 수 있는 휴게실도 있습니다. 지금, 리바이스 종로점으로 달려 오세요!

266-9386~9

ORIGINAL SINCE 1850

● 이 광고를 가지고 매장에 오시면, 선착순 1,500에게 리바이스 고급 Sweat-Shirt를 드립니다.

◆해설-복수 전공 학칙 개정

제 1·2전공 졸업요건 충족시 졸업증서 동시 수여

작년 11월16일 교육부에서 각 대학에 복수전공 운영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통보했다. 변경전에는 제1전공에 대한 학위를 수여받고 나서 부전공 2학점을 이수하면 제2전공 55학점을 이수하면 복수전공 학위를 수여받았다. 변경후에는 제1전공에 대한 학위수여를 확정하고 나서 4학년으로 재등록하여 복수전공을 55학점이상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부전공 과목으로 이수한 과목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전공과목을 복수전공으로 이수시 부전공의 효력을 상실한다. 개정후의 주요 골자는 복수전공자는 제1전공의 졸업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학위를 수여할 수 없으며, 제2전공의 졸업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학칙 제56조에 의한 졸업증서를 동시에 수여하는 것이다. 개정되지 않은 것은 4학년 1학기초에 소정의 지원서를 학적과에 제출하고 4학년말 총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후 제2전공을 취득하기전에는 제1전공도 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으며 2학기이상 5학기 이내에 제2전공을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 전보다 복수전공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부)

◆분교 인사개편을 바라보며

공채 직원, 기획과장 최초 승진 총학생회-보수회귀 우려도

지난 1일자와 6일자로 부총장을 비롯한 각 처실장 및 부속기관장급 인사와 처과장 인사개편이 있었다. 인사개편은 송석구 신임총장의 첫 사업으로서 학교행정 및 발전사업의 전환점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있다. 부총장으로 김생빈(토목공학)·김갑주(국사학)교수와 대학원장, 기초실장등 인사개편 뚜껑이 열린 가운데 그 결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다. 교무위원 인사결과에 대해 한 관계자는 "처실장 인사들이 새로운 인물"이라며 송총장의 개혁의지를 엿볼 수 있으나 "보직경험이 많지 않고 자리에 맞는 적절한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지는 미지수"라며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총학생회 한 집행위원은 보직인사에 대해 "보수와 경향이 짝고 재단의 인식이 강하게 작용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송총장의 개혁의지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 보직을 겸한 모 인사의 발탁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한편, 직원인사에 관해 김문길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정순, 이시우, 임영순씨 등 정년퇴직을 앞둔 직원들을 동국발전협의회 상임위원으로 발탁한 것은 명에

퇴직 활성화의 한 방편으로 본다"며 "학교 조직의 적체·교직원 과감하게 순환시키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80년대 이후 채용된 조원생 직원들이 처음으로 기획과장에 발령된 것은 발령된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직원인사에 관해 "일부 주요 보직에 재단의 인식이 작용한 것에 대해 송총장이 각 부장 및 처과장을 실력발휘 할 수 있는 인물을 기용하여 재단을 견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석구 총장은 선거때부터 '1천억 기금 조성등 대외적 홍보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해왔다. 안 살림보다 바깥 살림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로인 김생빈(토목공학)교수의 부총장 선임은 관계자들을 의아하게 한다. 제3캠퍼스 조성에 충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이도 있고 학교행정에 내실을 기하겠다는 의미로 생각하는 이 등 그 해석이 다양하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제맛'이라는 말이 학내에 유행하듯 '재밋내기를 바라는 동국 가족의 목소리가' 동약을 재우고 있다. (곽주영 기자)

학점 취득 확인 프로그램 개발

졸업에 필요한 미취득 과목 현장·평점 등 표시 이후 각 단대 및 학과에서 확인 가능토록 계획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 학적과(과장=송부자)는 졸업사정을 전산화함에 따라 학점 취득 및 미취득 과목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강 정정 기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수강정정에 3학년 이상 학생들에게 배부되는 '학점취득 및 미취득과목 현황표'는 졸업기준으로 미취득 과목과 졸업에 부족한 학점이 산출되어 있고 학기별로 이수 교과목과 성적, 이수구분 및 졸업평점등이 함께되어 있다.

학적과의 손재계장은 "전필, 전선 등 졸업에 꼭 필요한 과목을 이수 못해 졸업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복학생들이 이수과목을 확인하기 위해 교무과, 학적과로 상담을 문의하던 것을 학적과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점 취득 및 미취득과목 현황' 확인 프로그램은 지난 1년동안 보안업기준으로 미취득 과목과 졸업에 부족한 학점이 산출되어 있고 학기별로 이수 교과목과 성적, 이수구분 및 졸업평점등이 함께되어 있다.

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강신청 정정확인 오늘부터 10일까지

교무처(처장=장오현·경제학)는 9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확인을 오늘부터 1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강의계획서는 대학종합평가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전에 비해

강의의 목적 및 목표, 강의방법, 과제를, 주별강의 계획등의 자세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생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강의시간별로 각 단과과 강의계획서가 한권씩 제작될 뿐 아니라 교양과목도 별도로 만들어져 각 학과마다 두세권씩 배포되었다. 이에 대해 교무처의 한 관계자는 "지난 학기와 달리 내용이 상세하게 실렸고 분량도 많아서 제작이 늦어지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대학원 총학선거

교육대학원(원장=조영록·사학)은 제16대 총학생회장 임후보등록을 받는다. 임정은 다음과 같다. △등록일시=14일 오후4시까지 △입후보자격=2학기가이상4학기까지 등록을 필하고 회원10인 이상 추천을 받은 사람 △소선거보표 및 투표일시=15일 오후8시 동국관(L401)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식자과 선거일정 확정

생명자원학과대 식물자원학과는 정부학생회장 선거를 오는 16일에 실시한다. 식물자원학과는 작년 시행한 선거의 학생회장 당선자가 사퇴를 하여 선거를 다시 치르게 됐다. 선거일정은 다음과 같다. △8일=선거공고 △9,10일=후보자등록 △10일=선거공보 △13,14일=선거운동기간 △15일=유세 △16일=투표

동악어문학회 정기총회

동악어문학회(대표이사=임기중·국문학)는 지난달 28일 정기총회에서 대표이사로 임기중 교수를 선출하는 등 새 임원진을 구성하고 95학회 사업목표 및 운영방향을 결정했다. 대표이사 임기중 교수는 "우리 동악대 급변하는 학계와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새 임원진을 구성했다"며 "학회 활성화 방안의 모색에 회원 여러분의 많은 애정과 집착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앞으로의 사업계획은 다음과 같다. △학술총서 간행 총 10권 △국제학술 회의 개최 △학회지 게재 논문 심사제 실시 △교육부 학술진흥재단 학회지 출판 보조비 수혜 확정 목표.

총대, 불교대·이과대 새터 감사 들춰내기 아닌 학생회 강화에 중점

총대의원회(의장=박대용·불교4)는 불교대와 이과대를 대상으로 한 새내기 새터배출(이하 새터)특별 감사를 각각 지난 3일과 4일에 실시했다. 이번 감사를 위해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 감사국장, 조직국장, 문과대 대의원 의장 등으로 구성된 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박대용·불교4)가 지난달 27일 꾸러졌다. 사업감사와 예산감사로 나뉘는 이번 감사에서 사업감사는 재학생의 역할, 사업계획과 실제 진행상황 비교, 평가의 올바른 시행등이 예산감사는 예산과 지출내용의 차이와

원인등이 주요 내용이었다. 감사결과 불교대는 사업감사의 경우 사전교양의 부족으로 선배들의 역할이 불분명했고 사업계획과 진행상황은 잘 되었으며 평가는 대안위주의 평가가 아닌 평가를 위한 평가가 많았음이 밝혀졌다. 예산감사에서는 신입생의 참여 부족으로 인한 예산의 부족으로 지출과 차이가 있었음이 밝혀졌다. 단대 차원으로 새터를 한 이과대의 경우 과점상의 성과와 한계에 사업감사의 중점이 맞춰졌다. 감사결과 시간과 공간의 효율성, 통제의 용이함 등이 성과로 드러났

으나 준비 과정의 내실화 부족, 중앙과의 연계 부족등이 한계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 대해 총대의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이전까지의 들춰내기식의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새터의 문제점, 오류를 풀어나가는 토론의 장으로 만드는 등 학생회 강화에 목적을 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최한 새터는 오는 11일에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개강을 맞이한 불도들...불교학과 학생들이 지난 3월3일 4시30분경 아직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개강을 맞아 불상주변을 들쭉سو하고 있다. (취재부)

외전무대

외강내유(?)

○...분수대 옆에 세워져 있는 졸업·입학 축하탑, 입학식 하루가 지나기가 무섭게 축하탑의 문구는 요상하게 바뀌기 시작하는데. 다음인 연극영화학과와 신입생 환영공연 '인투아니아'홍보 포스터가 주범이라고 이에 회전문대자 알 "외부 포스터가 게시판도 아닌곳에 마구 붙는것은 마음껏 욕하고 들어내면서, 한 과의 학생회가 게시판도 아닌 졸업·입학 축하탑에까지 홍보물을 붙이는 일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야 했을 행동이 아닐까요...?"

선택

○...개강 첫째날 두 학우. 학우1:수업? 개강 첫째날에는 원래 수업이 없는거야. 당구나 치러가지. 학우2:그런 말도 안되는 소리가 어딴냐? 싫어 난 수업받으러 갈래. 잠시 후 학우1:아, 오늘은 공이 잘 보이는데. 학우2:아니 이게 뭐야. 30분이나 지났는데. 수업 하는거야 마는거야. 과연 옳은 선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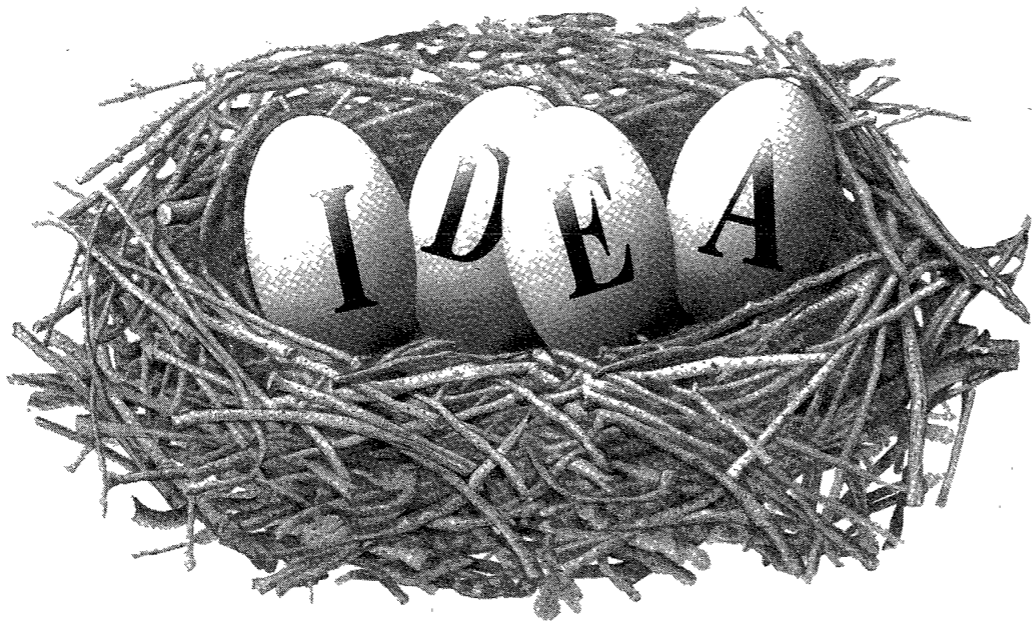
임마의 바다

○...외무부는 외국의 상업용 선박뿐 아니라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수선까지도 우리 영해를 사전통고절차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영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외무부는 무해통항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세계화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이에 본 회전문대자 알 "우리바다가 누구든지 안아주는 바다였던가"

미운 오리새끼

○...강의실이 굳게 잠겼다=수업받지 말라는 건가? 개강으로 수업을 받으러 온 개강과 학우를 맞이한 것은 굳게 잠긴 강의실 이라는데. 다음아나라 강의시간표엔 진흥관(B204)으로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다른학과가 사용해야 하니 그 강의실을 쓰지말라고 했다고. 영문도 모른체 제일 작은 강의실로 옮겨간 한 여학우 "나 동국인 맞어?"라며 똑같은 등록금내고도 미운오리새끼 대접 받는 것에 한탄.

소비자가 선택한 맥주-넥스 내가 만든 광고-넥스



소비자가 선택한 맥주-넥스 맛 뿐만 아니라 광고도 소비자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젊은 소비자, 대학생 여러분의 재기발랄함과 새로움이 돋보이는 넥스 광고를 만들어 보내주세요. 대학생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깨끗한 맥주 넥스가 기다립니다.

넥스 대학생 광고공모전

- 1. 참가대상: 전문대 이상 전국 각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2. 공모기간: 1995. 3. 16 - 4. 15
3. 공모주제: 넥스맥주 제품광고
4. 공모부문
- 신문광고: 7면 x 37cm 이상 할인
- TV광고: 30초용 TVCM 스토리보드(작품설명서 첨부)
5. 심사
- 1차심사(예선)
- 심사위원: 동양맥주 마케팅팀, 광고대행사 기획팀/디자인팀
- 심사내용: 부문별 본선작 20편씩 선정
- 2차심사(본선)
- 심사위원: 동양맥주 임원, 광고대행사 임원, 마케팅 교수
- 심사내용: 부문별 대상, 우수상, 장려상, 입선작 선정
6. 시상내역
- 신문광고
- 대상(1인): 장학금 300만원
- 우수상(1인): 장학금 100만원
- 장려상(2인): 장학금 50만원
- 입선(5인): 장학금 20만원
- TV광고
- 대상(1인): 장학금 300만원
- 우수상(1인): 장학금 100만원
- 장려상(2인): 장학금 50만원
- 입선(5인): 장학금 20만원
7. 발표
- 1995년 5월 13일(토) 일간스포츠
8. 본선심판
- 후원단위: 135-605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573호 넥스 광고공모전 담당자
- 방문접수: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988-4 (주) 오뚜기 맥스 광고공모전 담당자
*문의전화: (02) 527-7412
*제출서류가 필요하신분은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보내 드립니다.
9. 기타
- 신문광고부문, TV광고부문 동시에 응모하셔도 됩니다.
- 수상자에 대한 소수권은 당시에 귀속되며, 응모작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모작은 작품위원회 우대리나 하드보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동양맥주주식회사

영화의 패러독스

단편영화란 어떤 것인가

**실험성 담은 파격적 주제로 사회비판 창출
기존 영화문법 거부 새영화언어 탄생 기여**

자본의 불균등과 정치탄압으로 세미 포르노를 만들어내던 총무로에 비판을 가한 단편영화, 이 작은 영화들이 주는 큰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영화의 패러독스 안에 단편영화에 대한 글을 4주에 한 번씩 씀다.
(원필자)

뉴미디어 시대를 맞이하여 얼마 전에 정부에서는 우리나라가 1년동안 수출한 차의 수와 할리우드 영화 유라기 공원의 이익 수치를 비교하며 영화정책 진흥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영화계의 현실은 그다지 밝지가 못하며 장편영화의 토대가 되고 짧은 영화 길은 대대로 불리는 단편영화의 현상은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실제로 "단편영화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거나 간략히 알고는 있어도 흥미를 갖고있지 못하다고 대답한다. 외국 단편영화들이 본 영화관에 상영되거나 TV, CATV에 방영 또는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는 것에 비교한다면, 이러한 상황들은 바로 현재 한국 단편영화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며 얼마나 단편영화 한국영화계 한 구석에 버려지고 있는지를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다.

84년 7월 국립극장 실험무대에서 행해졌던 제 1회 작은 영화제는 단편영화를 본격적인 관심의 초점이 되게 하였다. 이 당시 쓰인 작은영화제는 "남의 총무로 단편영화에 대항하는 의미로서 단편영화 또는

소형영화로 통하던 8미터와 16미터 영화를 작은영화라는 명칭으로 통일시켰다. 85년 이후부터 대학의 영화 동아리를 중심으로 작은영화에 영화운동이 핵심과제가 되면서 열린영화, 민족영화로 발전해 나갔고, 영화운동의 대명사로 얘기되어지는 장산 꽃매의 '파업전야와 청년의 '오 어머니 당신의 아들' 등이 16미터 독립영화들의 뿌리가 되기도 하였다. 현재 단편 영화의 개념은 35미터까지 영역이 확대되어 1시간미만의 영화를 가리키는데 16미터 필름과 30분미만의 영화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

단편영화는 두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데 영화와 학생이나 영화 동아리들이 장편 영화제작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실용적용도로 삼거나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 건강한 영상문화를 자체적으로 창출해 내고자하는 두가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단편영화 구조에 비추어 볼때 후자보다는 전자가 강하고 뒤에 얘기될 장편수 감독의 '감의 남쪽 (79)' 박광우 감독의 '강아지 죽는다 (83)' 김의석 감독의 '창수의 취일시대 (84)' 이재용 감독의 '호모비디오쿠스 (81)' 등을 들 수 있으며 이 두가지 형태는 한데 어우러져 나타나기도 한다.

단편영화의 특징으로는 형식면에서 과감한 실험정신과 내용면에서 파격적인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기존의 영화문법을 거부하는 끊임 없는 영화형식 탐구자세는 형식의 혼란과 표출의 문제를 남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영화언어를 만들어 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나 단편영화의 가장 큰 특징은 주제면에서 파격적인 소재의 선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총무로 영화가 자본구조의 측면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80년대 세미 포르노 영화를 제작해 내던것과는 대조적으로, 농민현실의 '파랑새 (86)' '애국적 청년투쟁의 인재를 위하여 (87)' 제도적 폭압의 '그 날이 오면 (87)' 등은 표현역량의 한계를 보이기는 했으나 정치사회 구조적 측면에서 날카로운 사회비판들을 창출해내는 시대정신을 보여 주었다.

우리나라 단편영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제작비 (20분제작에 평균 4백~5백만원)와 상영배급 체계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특히 영화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중요성이 경험임을 비추어볼때 오히려 단편영화에 있어서 자본의 불균등은 더욱 심화되어 소수에게 집중이 되어 있으며, 상영 배급면에 있어서도 전용극장 하나없는 현실 때문에 대학가에서의 상영, 1년에 3, 4회 정도의 단편영화제를 통한 일회성 상영 배급체제에 그치고 있다.

상영공간의 다양한 확대와 영화진흥공사라는 기관이 무색할 정도로 단편영화에도 상영영화와 똑같은 현상비와 녹음비를 요구하는 현재의 영화정책, 그리고 CATV시대의 본격적 개막을 맞이하여 단순한 시간 때우기 용이 아닌 적극적인 CATV와 TV의 활용이 좀더 실천적으로 이야기 되어야 할 것이다.

우 필자 (대학원 영화과 석사과정)

◇민중문화운동연합 (경주캠) 을 진단한다

**민중문화에 대한 고민부족이 문제
전문성·대중성 향상에 노력해야**



◇민중문화는 90년대 문화의 다양성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일으켜 세우야 하는 고민이 시급하다.

TV에서 보던 그대로 낭만만이 넘치는 것이 대학내의 문화는 아니다. 그럼, 대학에 입학한 신세대 대학생이 추구하는 문화는 과연 무엇인가.

이전의 80년대는 '싸움의 문화' '문화의 싸움'이라는 정의가 내려지는 대학의 문화가 존재했으나, 90년대는 학생운동의 성격이 아닌 다양한 그 어떤 양식들, 음악이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대중적인)을 통한 것으로서 형성이 되고있다.

개인주의적이지 않거나 무엇인가에 공동체 의식을 가진다면 대학 문화는 이루어 질수 있지만, 이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90년대에 맞는 대학문화의 창출해 낼 90년대 학생들의 움직임이다. 그들이 보여야 할 움직임은 앞서도 언급했듯이 앞서 하는 학술적, 사상적인 논의가 아닌, 바로바로 몸으로 느낄수 있는 신명나는 문화 활동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교 (경주캠)에는 그러한 문화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시킬 수 있는 단체가 자리잡고 있

다. 몸짓·그림·소리·노래패등 민중문화 동아리들의 연합 '민중문화운동연합(이하 민중연)' (의장=박재형·생물3)이 바로 그것이다. 현재 민중연 소속 동아리는 중앙동아리인 해방문짓, 탈패, 올센(노래패), 하늘의 사람들(그림패), 삼경대 동아리 강철사람(노래패), 과내동아리 그날이 오면, 무서나탈, 하나 필동이다.

민중연은 88년 처음 이름 동아리의 친목도모를 위한 소모임으로 출발했다가 구체적으로 민중문화를 고민하는 연합회 차원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민중연이 존재하는 가치만큼의 활동을 보이지 못한채, 91년 '선포'라는 집체극을, 93년 총여 주최의 '민중문화 한마당' 94년 인문대과 문예학교를 열었을 뿐, 그외 별다른 행사를 가지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 원인을 의장 박재형군은 "인원부족과 열악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민중문화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자 민중연은 '각별별 전문성·대중성 향상'을 기조로 세우고, 전문성·대중성의 실천방안으로 민중연 내의 문예학교, 소공연,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의 거리에 80년대 저항문화가 퇴조하자 마자 상류층 문화인 이른바 '귀족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현실에서, 미미하지만 저항문화를 살리려 애쓰는 이들의 움직임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90년대 문화의 다양성도 좋지만 대학생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그 역할에 맞게 다양성 속에서도 의식있는 문화를 생산해 내고, 무너지는 공동체 의식을 일으켜 세우야 하는 고민은 시급하다.

무너진 것을 올바르게 세우려는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에 앞서 뼈아픈 반성이나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민중문화에 대한 고민의 부재' 민중연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한다면, 이제 그 평가에 맞는 대안들을 실천해 나가는 작업으로 교정을 불 붙게 해야 할 것이다.

(박요선 기자)

문화단신

새책소개

◇혁명철학... 국제신문 문화부장인 임수생의 협조했던 80년대를 지나오면서 군부의 폭압정치에 억눌려 신음하는 민중의 삶과 애환을 대변하고 있는데, 당시의 언론상황을 직접 체험한 산역사의 기록이다.
도서출판 빛남, 5천원

◇내이나 19와 1/2, 새로운 시작... 이 책은 보통 19와 1/2와 살인 신인물들이 대학에 처음 들어와서 들수 있는 대학입문서다. 대학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습을 그린 부분, 70년대 중반 이후의 역사를 담은 부분, 대학에 들어와서 경험하게 될 생활과 문화를 담은 부분 등 총 다섯부분으로 엮여져 있다. 통일, 환경, 세계화의 패러독스, 성문제, 영화위기 등 다양한 읽을거리가 담겨있다.
기획출판 거름, 7천원

◇천자문 고전산책... 천자문은 한자의 초학교재로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언고시의 절제된 문장형태임을 자제하게 끌어놓은 책이다. 천자의 생생과정, 애뜻한 신화, 고대 현군들의 면치, 인간의도리, 역사, 화문, 산천의 모양 등 천자문에 담겨진 여러가지 내용과 함께 운율승도 설명하고 있다.
텍서스, 6천5백원

공연안내

◇백두산... 고은시인의 대하서사시 백두산을 총체극으로 무대화한 작품이다. 항일무장투쟁운동사를 우익과 좌익을 함께 재조명했다. 춤을 중심으로 연극, 노래, 민요, 무예, 설치미술 등 각 장르가 결합한 형태이며, 마당춤의 남성적 활력과 신명을 본거 도입했다. 국내 초유의 3시간 장막총극을 시도한 것이 주목할 만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매 총세상 공연 문예회관 소극장 3월11일부터 13일까지. 문의 922-7329



봄의 단상

▲가야할 때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쓸쓸한 감정은 속일수 없는 것 같다. 떠나는 자나 보내는 자나 그 마음은 단 한가지일 것인데 애써 웃음지으며 애정되어있지도 않은 또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지는 것이 미련한것인지 아름다운 것인지, 또는 세상사는 일이 다 그렇고 그런건지 안수없다. 어제의 이별도 잠시 통과해처럼 스쳐가고,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새로운 만남에 익숙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지만 나의 감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이리저리 느끼며 지든다. 이별과 만남이라는 상반된 개념이 조화를 부리고 있는 이 계절은 망각을 신이 부여한 선물일지를 의심스러워 하는 내 마음까지도 의심스럽게 해준다. ▲누군가가 말했던 잔인한 계절이 어김없이 찾아왔다. 잔인한 계절 봄. 이는 대자연의 생명력에 대한 거친

술소리에서 뿐만 아니라 대학의 한 캠퍼스에서 느낄수 있는 문구다. 교문을 나서는 자들의 뒷모습과 교문을 들어서는 자들의 앞모습의 명암이 이처럼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시기는 아마 이 계절 밖에 없을것이다. 따스한 봄날 캠퍼스의 한 모퉁이에 앉아 이별과 만남을 지리하게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은 사치스러운 일은 아닐것 같다. 아마 남아있는자의 예외는 아닐까. ▲이곳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한다면 떠나는 자는 떠나는 자일수 밖에 없을것이

요, 교문을 처음 들어서는 자는 신입생일수 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공간과 시간의 기준을 해체 해보면 떠나는 자는 또다른 세계의 신입생일 것이요, 이 곳의 신입생들은 이전에 세계에서 떠났던 자가 아니었던가. 이별과 만남, 만남과 이별. 처음과 끝, 끝과 처음은 한가지일수 밖에 없다는 회자정리(술정정)라는 인간사의 진리를 이 계절에 음미해 보지 않는다면 언제 해볼것인가. ▲정든 캠퍼스를 떠난 졸업생들과 정든 그 어느 곳을 떠나는 신입생들과 매한가지 같은 것은 '시작이란 단어가 아니겠는가. 부디 또다른 세계에 뛰어든 그들에게 첫 단추가 잘 끼어졌으면 하는 바람뿐이다. 지금 자기보이는 원효관의 불그스스하고 노오란 노을이 처음을 시작하는 이들의 수줍고도 설레이는 불이라면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떠오를 것을 의심치않는다. (송)



정의를 위해

그는 분연히 망치를 들었다.

"정당공권배제" 날치기통과

프로는 아름답다

국립중앙도서관

아직 실제 살았어

젊은이여, 시대의 흐름을 알자!

“표정을 바꾸자”

지금 당신은 어떤 표정?
자 이제 세계를 보자.
맹류! 세계 / 당개넌! / ...
세계의 비즈니스 표정은 기본은 미소와 감사,
그리고 상대를 녹이는 작당한 매너!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 -
젊은이여 굳은 얼굴을 펴자.
세계로 뛰기 전에 표정부터 바꾸자.
새로운 표정을 만들어 보자.

기술의 흐름에 주목하십시오.
미래의 기술은 산업용 전기, 전자기술 - LG산전이 앞서 개척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기술에는 냉장고, TV 등 가전기기를 만드는 家電분야와 FA(공장자동화), 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전기전자기기 및 시스템을 공급하는 産電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기업들은 성장잠재력이 큰 産電분야에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 - 産電 기술은 산업전반에 걸쳐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지닌, 젊음을 투자할 만한 기술분야입니다.

■전력기기·설비 사업 분야
●저압기기 ●고압기기 ●변압기 ●계량기기 ●송배전설비
●전기집진기 ●태양광 발전시스템 등

■빌딩설비 사업 분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빌딩관리시스템 ●주차장비
●방범방재시스템 ●고소작업대 ●승용기 등

■제어기기 사업 분야
●Robot ●PLC ●CNC ●인버터 ●안정기 ●조음과세척기
●방진가공기 ●센서 ●릴레이 등

■자동차시스템 사업 분야
●자동차고 ●물류시스템 ●광검출시스템 ●하이스트
●도로교통 및 철도운행 제어시스템 ●차외선살균시스템 등

■서비스 산업기기 사업 분야
●자동판매기 ●소켓이스 ●자동문 ●교양세척기 ●차량정비기기
●주유기 ●세척기 ●전동공구 등

LG산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LG 트윈타워) 대표전화 : (02)787-1114